

0810(수) 예레미야 11-15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

예레미야는 참 <여호와의 종>으로 살았습니다(사52:13-53:12).

그는 <눈물의 선지자>라 불릴 정도로 고단한 생을 살았습니다.

11-20장에는 <예레미야의 고백>, 부르짖음이 5차례 등장합니다.

(11:18-12:6, 15:10-21, 17:14-18, 18:18-23, 20:7-18)

성전에서 선포한 경고의 메시지는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(7:2, 26:2).

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(20:1-2, 26:8),

예루살렘과 예민한 관계에 있던 아나돗 사람들조차(11:19,21)

<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> 위협할 정도였습니다.

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해야 할 예언의 무게와(13-14장, 15:1,3),

강박한 백성,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찌나 힘겨웠던지(11:19,15:10, 20:14-18)

<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양 같다, 왜 태어났을까? > 탄식합니다.

하나님이 <숙이는 시내>, 신기루 같다고 울부짖습니다(2:13,15:18). ^{Stulman, Jeremiah}

왜 나를 이 길로 <괴었느냐>며 항의합니다(20:7, 권면, 히)파타).

약속만 바라기엔 현실이 너무 참혹합니다(11:22-23, 12:1).

사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선지자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.

하나님은 고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, 고난에도 불구하고

끝까지 사명을 <완수>하도록 굳게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.

위로의 본질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.

(1:18, 15:20, 고후11:23-27, 김근주, 특강 예레미야)

예레미야의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(15:5).

그가 할 일은 공의의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뿐입니다(11:20).

상황에 침잠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헛된 것을 버리고

귀한 것을 말하는 <하나님의 입>이 되는 것입니다(15:19).

“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하라(갈1:10)”

주님께로부터 온 <모든 것>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?

① 고난이 없길 기도합니까, 고난 중에도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합니까?

② <하나님의 동행하심>, 그 자체가 위로이며 복임을 고백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11-15장